잘못을 고침

반성문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잘못이 없는지 되돌려 살펴보는 일이 반성이다. 반성은 진정성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 예전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면서 반성시키는 부모도 있었지만, 반성문을 쓰게 하는 어른도 있었다. 둘 다 효과가 적었을 것이다. 강제로 하는 반성이 제대로 되었겠는가? 아이들은 스스로 반성하는 일이 적으므로 그렇게라도 하는 심정은 이해가 된다. 심지어 어떤 어른은 반성을 시킨다고 똑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쓰게 한다. 그건 일종의 고문이자 잘못에 대한 보복이지, 정작 아이에게는 반성보다 반항 심리가 생길 것이다. 다행이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나쁜 행동을 안 한다면, 그렇게 시킨 사람은 그 방법에 효과가 있다고 굳게 믿었겠지만, 사실 아이는 그 일이 질려서 당장 눈앞에서만 안할 뿐이다.

그래서 반성은 그 주체의 자발성과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된 예화가 『소학』에 보인다.

> 중국 한나라 사람 목융繆肜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사형제가 생업을 함께 하였다. 자라서 각각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동생의 아내들이 재산을 나누어 따로 살기를 요구하고, 또 자주 다투는 말이 있게 되었다. 목융은 깊이 분하고 한탄스런 마음을 품고, 방문을 닫고 스스로 자기 몸에 매질하였다.
> 그러면서 말하기를 "융아, 네가 몸을 닦고 행동을 삼가여 성인의 법도를 배운 것은 장차 풍속을 바로잡으려는 것인데, 어찌하여 자기 집안조차 바르게 하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 아우들과 그의 아내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여, 마침내 집안이 화목하게 되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는 대가족제를 당연시 여겼으므로 이런 고사가 있었다. 핵가족제보다 대가족제를 선호한 것은 경제·사회적 배경이 있다. 더구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살았으므로 형제애가 두터웠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데 대한 큰 형으로서 반성한 일이다.

윗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일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나름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들 앞에서 혹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좀 해괴한 일이지만 남편들 가운데도 잘못을 저질러 자기 아내에게 반성문을 자주 쓴 사람도 있

다고 들었다. 그런 사람에겐 반성문 자체가 효력이 없나보다. 그냥 그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썼는지 모르겠다. 반성문을 자주 썼다면 잘못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리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작은 실수라도 없을 수 없으니, 즉시 반성하고 잘못을 고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지름길일 것이다.

반성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특히 나이든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 대개 사람이 늙으면 판단이나 사고력이 이전만 못해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이나 말이 상황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매사에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성이 필요하다. 필자가 잘 아는 어떤 선배는 한문으로 된 고전의 대가인데, 일흔이 넘은 나이인데도 젊은 후배들과 같이 공부한다. 문장을 해석하다가 간혹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면, "아이쿠! 큰일 났다. 정신 바짝 차례야지."라고 말하며 늘 이렇게 긴장하며 공부에 참여한다. 이 또한 자신의 사소한 실수를 반성하는 행위이다.

율곡 선생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일이 덕을 보충하는 길이라고 알려준다. 그 옛날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덕을 보충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지 생각해 보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말이자 복음 전파를 막 시작하는 예수의 첫 말이기도 하다. 모두 당시 유대인들에게 외친 말이다. 오래 전 유선 방송에서 우연히 '회개'를 주제로 한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그 요지는 이렇다.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또는 개인 기도에서 크고 작은 잘못과 실수에 대한 회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한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부 신자는 회개 기도로서 회개가 끝났다고 믿는다고 한다. 회개悔改란 한자어 그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다'는 말인데, 뉘우치기만 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실천적 행위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설교였다.

지당한 말이다. 성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지 않았던가? 잘못이 있으면 즉시 바로잡는 실천이 요구된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습관성 음주를 뉘우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금주를 실천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선생이 소개하는 잘못을 인식하고 고치는 사례는 무척 많다.

먼저 공자는 『논어』에서 "잘못하였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사람이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실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또 『서경』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겨서 잘못을 이루지 마라."라는 말도 공자의 말과 비슷한데, '잘못'은 실수나 우연히 저지를 수 있지만, '이루지 말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잘못을 고치라는 말이다. 잘못이 부끄러운 일이라 감추지 말고, 그것을 고치지 않아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나 유명인의 잘못은 금방 알려진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남녀 문제, 자녀 문제, 친인척 문제 등 남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는 게 없다. 그런데 대부분 감추려고 한다. 『논어』에 보이는 자공의 말은 이와 다르다.

"군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일식이나 월식 같이 다 드러내서 사람들이 다 보니, 고쳤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본다."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고치면 행위가 맑고 투명해져서 티나 흠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본다는 의미이다. 잘못을 숨기지 않고 고치는 일도 훌륭하지만, 그런 행위를 보고 우러러보는 것도 아름다운 행위이다. 당시는 지도자를 백성이 선택하는 사회가 아니라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정치 지도자는 국민이 선택하므로 지도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다. 그 경우 잘못의 경중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심하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야당과 그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숨기려고 한다. 이렇듯 현대의 정치 지도자에게는 자로의 말이 통하기 어렵다. 그러니 한 번의 실수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니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

같다. 물론 비리가 아닌 정책의 실패에 따른 잘못은 선거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아무튼 잘못은 회개해야 한다. 자로가 말한 대로 일식과 월식처럼 잘못을 드러내 놓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게 지혜로운 일이며 정면 돌파의 길이며 문제를 꼬이지 않고 쉽게 풀어가는 지름길이다.

변명하는 자 그대는 소인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도 변명을 자주 본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쟤가 먼저 건드려서 그랬다.'는 따위가 그것이다. 아이는 말 그대로 소인이니 변명할 수 있지만, 어른이 이런 식이라면 소인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 자하가 『논어』에서 말하기를, "소인은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꾸민다."라고 하였는데, '꾸민다'는 게 요즘말로 변명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주희는 "소인은 잘못을 고치기 꺼려하고 스스로 속이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꾸며서 그 잘못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라고 하였다.

변명하거나 핑계하면 더 잘못이 커진다는 말이다. 1970년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상대 진영의 대화를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하다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하원 사법 위원회의 탄핵 결의가 가결되자 결국 사임했다. 당시 이

를 두고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Honesty is the best policy'는 말이 뇌리에 맴도는 것은 필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다. 그는 잘못을 더 크게 만든 잘못 때문에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때만 해도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 핀 나라라고 믿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빨리 알아차린다. 혹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쳐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나 배우자나 아랫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의 글에서 소개한 친구의 충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왕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의 충간忠諫이 있어야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논어』에서 "자로는 남들이 허물을 일러 주면 기뻐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자로는 공자의 제자로 스스로 몸을 닦는 데 이와 같이 용감하였다는 주희의 평가 이전에, 나의 잘못을 알려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가 들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화낼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일단 화부터 낸다.

도덕을 지키면 손해 본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은 '정도正道로 가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운전할 때도, 세금 낼 때도, 심지어 선거판에서도, 또 그 무엇을 할 때도 법과 규정의 허점을 노려

이용한다. 그래서 꼼수 부리는 것을 예사로 알고 능력으로 통한다.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다가, 정작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상대 진영의 유명인사가 들켜서 언론에 알려지면 분개하고 난리다. 완벽한 이중 잣대이다. 자세히 살펴보라. 일상생활에서 꼼수 아닌 게 얼마나 있는지.

허나 도덕을 지키거나 정도로 가는 길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도덕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익에는 물적 이익도 있지만 덕을 쌓는 일이라면 더 큰 이익이다.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이 좋은 일이다. 이런 관점은 『주역』의 논리와 통한다. 이 책이 원래 길흉吉凶을 점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길은 이익에, 흉은 손해에 연결된다. 『주역』에 이르기를, "멀리 가지 않고 돌아와 후회하는 데 이르지 않으니, 크게 길吉하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이는 '돌아오다'는 말 자체가 잘못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고, 잘못하지 않았다면 무슨 돌아옴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잘못한 일이 멀리까지 가지 않고 돌아온다면, 후회에 이르지 않아서 크게 좋고 길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불선임을 알면 속히 고쳐 선을 좇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선을 따르는 것이 학문의 길이라고 하였는데, 결국 잘못이 있더라도 반성하여 도덕적인 덕을 쌓는 일이 길한 것이다.

또 『주역』에 "바른 데로 돌아오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은 흉하다."라고 하는 것도 돌아오는 것과 반대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정이의 풀이도

돌아오면 도리에 합치되는데, 돌아오기를 주저하여 도리와 서로 어긋나니, 그 흉함을 알 수 있다고 여겼다.

아무튼 정도로 돌아오는 것이 잘못을 고치는 일로서 좋은 것이고, 돌아오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은 나쁜 것이다. 여기에는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도로 가지 않아 인생이 말년이 비참하게 된 유명 정치인들을 우리는 자주 본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서 그렇다고 간단히 생각하거나 정치 보복이라는 견해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놓고 따져볼 때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단견이다. 바로 권력이나 돈을 바라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비도덕적 실수나 잘못을 고치면서 정도로 갈려고 노력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평소에 깨끗하게 살았다는 신뢰가 쌓여 있다면, 누명일 수도 있다는 동정심도 따른다.

『주역』의 이런 관점은 여타 고전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생각이 녹아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고대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집단 지성에 의한 지혜가 들어있다. 물론 그 지혜라는 것이 경험이 갖는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의 누적에 따라 나름의 검증을 거친 것이어서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하겠다.

이렇듯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은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장기적인 면에서는 도덕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물론 그 도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점은 시대에 따라 조정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그 형식면에서는 보편성을 갖고 아직도 유효하다. 가

령 효도·사랑·정의·공경·겸손·성실·신의·관용 등이 그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고전이나 성인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정치·경제적 배경과 관련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고대의 예법이나 율법을 오늘날 시행할 수 있겠는가? 이는 선생이 제안한 각자의 덕을 보충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른 사람을 사귀거나 잘못을 고치는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가 바른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종교·이념·문화·가치관·피부색·계급·학문 등의 차이는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예법의 차이를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와 관련된다. 잘못에 대한 기준도 상대적일 수 있다. 나는 정당하다 여길지라도 상대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가령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대료의 인상을 두고 어느 선까지가 정당하고 부당할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정해 강제로 관여하지만, 이 경우도 억울하다고 느끼는 쪽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성현의 말씀을 따라 덕을 보충하기 위해 바른 사람을 사귀거나 잘못을 고칠 때, 그 '바르다'는 것과 '잘못'의 기준은 보편성을 띠어야 한다. 곧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의 정의가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려면, 그 목적이 인류 욕구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체로 고전의 내용들이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간혹 시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첨언하였다.